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방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age Behavior of An-bang in Apartment Dwellers

이 복 희*

Lee, Bok-Hee

윤 재 웅***

Yoon, Jae-Woong

한 지 영**

Han, Ji-You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usage behavior of An-bang space in apartment dwellers through the perception, the residential life style and the use of furniture. The data is collected from interviewing housewives through questionnaire designed for this study. The 210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ies, Mean, Factor analysis, χ^2 -test,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test.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It is called An-bang' or 'large room' rather than 'master's bedroom' although it is recognized as exclusively couple-oriented space. And are founded to be different designation and perception of An-bang space. 2) The residential life style in An-bang is classified as family-centered·gathered, rest·entertainment, make-up·fitting and hobby. And it has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dwellers according to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3) The furniture style and arrangement pattern are mostly modern ones and 'ㄷ' type.

I. 서 론

주택의 공간조직은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의 표현이며,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속에서 형태와 의미, 기능 등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회·문화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이다. 한국 전통주택의 공간조직은 유교적 이념 하에서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하고, 안채에는 안방, 부엌, 대청, 건넌방을, 사랑채에는 사랑방, 대청, 책방 등을 두어 남녀의 생활권을 구분하여 왔다. 안방은 안주인의 일상 거처실로 주거공간 내에서 가장 폐쇄적인 공간이긴 하였으나 중요한 재물이 보관되고 장이나 농 등으로 장식되며, 취침이나 식사, 단란, 접객, 가사작업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가족의 임종을 맞이하는 등 주거기능의 많은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집안의 상징적 중심공간으로 깊이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주거문화는 개화기 이후의 타율적 근대화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주거관, 생활양식 등의 변화와 함께 서구적인 주거문화권으로 편입되었다. 그리하여 최근 도시에는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보편화되고, 주택의 내부공간이 기능적 분화와 더불어 서구화, 입식화됨에 따라 주공간과 주생활양식과의 갈등 속에서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 도시주거에서의 안방은 주로 부부침실의 기능을 수행하고 부분적으로는 가족실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족실의 기능은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이며 부부침실로 정착될 것이 예상된다(김미희, 1991). 안방에서의 취침을 제외한 가족식사, 응접, 가족단란행위는 독립주택의 경우가 아파트에 비해서 안방집중 현상이 두드러져서 아파트의 사실화 경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이영호, 1991)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안방의 관련연구로 김종인(1995)은 아파트주거의 안방 이용행태의 특성에 관하여, 이영호(1991)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연구·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생활행위나

*정회원,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정회원, 대구효성가톨릭대 생활환경학과 강사

***정회원, 대구효성가톨릭대 생활환경학과 교수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김미희, 1991; 조성희, 1987; 전한중 외 1987) 등에서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으며, 김정규(1988)는 안방과 거실의 기능을 비교·연구하였다.

향후 주거형태의 고밀개발 추세는 불가피한 현실이며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아파트의 선호는 점차 높아갈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라는 정형화된 주거생활환경 속에서 거주자들이 다른 침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안방의 사용행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의 내부공간 중 한국인의 주의식 속에 깊이 남아있는 안방공간에 대한 거주자들의 의식과 요구, 실사용 및 가구사용 행태 등의 변화양상을 조사 분석하여 공급자 위주의 계획방식을 지양하고 거주자의 주생활에 대응하는 안방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방에 대한 의식은 개인적 특성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안방에서의 주생활 행위에 대한 요인구조는 어떠한가?
- 3) 안방에서의 주생활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4) 안방에서의 주생활 행위와 가구 사용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조사대상을 무작위로 추출, 설문지를 통한 면접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조사는 1998년 8월 17일~26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2. 도구 작성 및 자료처리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선행연구(김미희, 1991; 이영호, 1991; 조성희, 1987)와 관련문헌, 거주자들의 면담자료 등을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내용은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 및 주거상태를 묻는 11개문항과 안방에서

의 주생활 행위에 관한 24문항(Cronbach's $\alpha=0.86$)으로 구성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10부로, 이들은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χ^2 ,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하위 집단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추후 검증으로는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III. 조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가족유형을 제외한 11개의 개인 특성변인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표 1).

가족수는 4인이 63.3%로 가장 많고, 가족유형은 핵가족이 88.6%로 나타나 특성 변인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생활주기는 만 자녀의 취학단계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초등교육기가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의 연령도 30대가 64.8%로 가장 많았다. 부부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각각 62.9%, 46.7%로 나타나 비교적 고학력의 형태를 보였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의 순이고 주부는 취업주부가 31.9%를 차지하였다. 가계 월평균소득¹⁾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 고소득의 가구도 21.4%를 차지하였다. 주택 규모는 20평형, 30평형이 각각 39.0%, 38.6%로 나타났으며, 거주년수는 3~4년이 40.5%, 2년 이하가 40.0%로 나타나 아파트 거주자들의 잦은 이동성을 엿볼 수 있었다. 기거양식은 안방에서의 침대사용 유무에 따라 입식, 좌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각각 45.7%, 53.3%로 나타났다.

2. 안방에 대한 의식

안방에 대한 거주자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호칭, 크기 및 공간 만족도, 공간적 성격, 요구되는 부수공간 등에 대한 개인 특성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2).

호칭은 안방(41.0%), 큰방(35.2%), 엄마방(16.2%), 침실(5.7%), 기타(1.9%)의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10

변인	구분	f(%)	변인	구분	f(%)		
가족수	3人以下	21(10)	남편직업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기타 계	29(13.8)		
	4인	133(63.3)			19(9.0)		
	5인이상	56(26.7)			60(28.6)		
	계	210(100)			56(26.7)		
가족유형	핵가족	186(88.6)			37(17.6)		
	확대가족	21(10.0)			4(1.9)		
	계	207(100)			205(100)		
가족생활주기	취학전아동기	16(7.6)			주부의 취업유무	유 무 계	67(31.9)
	초등교육기	121(57.6)					140(66.7)
	중·고등교육기	19(9.6)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만원 이상 계	10(4.8)		
	대학이상	54(25.7)			68(32.4)		
계	210(100)	83(39.5)					
주부연령	20~29세	5(2.4)	45(21.4)				
	30~39세	136(64.8)	206(100)				
	40~49세	52(24.8)	주택규모	10~19평	10(4.8)		
	50세이상	13(6.2)		20~29평	82(39.0)		
	계	206(100)		30~39평	81(38.6)		
		40평이상		33(15.7)			
			206(100)				
남편학력	중졸이하	7(3.3)	기거양식	입식 좌식 계	96(45.7)		
	고졸이상	69(32.9)			112(53.3)		
	대졸이상	132(62.9)	거주년수	2년이하 3~4년 5~10년 11년이상 계	84(40.0)		
	계	208(100)			85(40.5)		
주부학력	중졸이하	21(10.0)	31(14.8)				
	고졸	91(43.3)	7(3.3)				
	대졸이상	98(46.7)	207(100)				
	계	210(100)					

표 2.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안방의 호칭, 크기에 대한 인식, 공간만족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df	χ^2
가족생활주기	안방의 호칭	12	29.469**
주부연령	안방의 호칭	12	27.174**
남편학력	안방의 호칭	8	16.509*
거주년수	안방의 호칭	12	22.876*
남편직업	안방의 크기	10	21.058*
주택규모	안방의 크기	6	29.034***
주택규모	공간만족도	12	21.163*
거주년수	공간만족도	12	22.850*

*P<.05, **P<.01, ***P<.001
 χ^2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만을 요약 정리하였음.

통적인 ‘안방’으로 부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이영호, 1991; 조성희, 1987)과 일치하였다. 개인특성 별로는 가족생활주기, 주부연령, 남편학력, 거주년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주부연령에서 20대, 30대 주부집단은 안방, 큰방의 순이었으나 40대, 50대 주부 집단은 큰방, 안방의 순이었다. 전통적으로 ‘안방’은 특히 안주인의 일상거처로 안주인의 격을 의미하고 ‘큰방’은 모든 가족의 공용공간이며 주거내의 모든 공간을 대표하는 중심공간으로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주인으로서의 격을 의미한다(강영환, 1993)는 관점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공식지향적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주거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안방의 크기²⁾에 대한 인식정도는 ‘적당하다’가 65.7%, ‘작다’는 20.5%, ‘크다’는 13.3%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개인특성변인별로는 남편 직업, 주택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0평대인 경우에 안방크기에 대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10평대의

표 3. 안방크기에 따른 공간만족도

	M(SD)	S
크다	3.14(.80)	A
적당하다	3.47(.63)	B
작다	2.56(.73)	B
F값	30.029***	

***P<.01

거주자들은 '작다'고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안방 공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보통' 47.6%, '불만족' 37.1%, '만족' 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규모, 거주년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택규모별로는 40평형대 이상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작은 평형대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안방공간의 전반적 만족도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중 안방의 크기에 대한 인식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변인을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안방의 크기를 '크다' 혹은 '작다'고 인식하는 경우보다는 '적당하다'고 인식한 경우에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집단 간에는 '크다'와 '적당하다·작다'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크기가 안방의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안방의 성격은 '부부만의 은밀한 공간'(64.2%), '가족단란의 친밀한 공간'(26.5%), '지위상징이나 손님접대 공간'(7.8%), 기타(1.5%)의 순으로 나타나 안방은 점차 독립성을 추구하는 사실로 정착되어 감을 볼 수 있다. 안방의 성격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호칭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으로 의식하고 있으면서 '안방'(25.7%) 혹은 '큰방'(22.0%)으로 부르고 있어 실제 호칭과 실사용과 관련된 성격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방에 부가되어야 할 공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욕실, 드레스룸, 창고, 서재, 부침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복수응답 처리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것은 드레스룸(24.6%) 이었고, 그 다음이 부침실(21.4%), 욕실(21.0%) 순이었으며 '수납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68.1%로 나타나 안방에서 각종 생활용품의 수

표 4. 안방에서의 주생활행위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내용		요인	요인				공동분산비(h ²)
			1	2	3	4	
요인 1 가족·모임·단란	손님맞이		.866	-.019	-.053	.210	.799
	친척모임·맞이		.831	-.135	-.058	.154	.735
	차, 과일등의 후식		.796	.034	.165	.284	.773
	가족의 식사		.722	.019	-.046	.052	.523
	가족의 담소·놀이		.704	-.085	.325	.765	.616
	TV시청		.624	.021	.269	.012	.510
요인 2 휴식·오락	낮잠		.027	.876	-.046	-.026	.961
	신문, 잡지 등 독서		.206	.764	.012	.174	.671
	음악감상		-.082	.707	-.097	.012	.517
	휴식		.127	.520	.113	.038	.558
요인 3 몸단장	옷갈아입기		-.044	-.069	.904	-.036	.830
	화장		-.043	.097	.902	.069	.833
요인 4 취미생활	화초가꾸기		.094	-.086	-.127	.825	.706
	부부의 취미활동		.227	.096	.257	.705	.624
	간단한 운동·헬스		.250	.045	.137	.512	.386
고유값			4.600	2.817	1.349	1.237	
분산의 백분율			30.67	18.78	9.00	8.25	
누적 백분율			30.67	49.44	58.44	66.69	

납을 위한 충분한 공간 혹은 설비의 요구도가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안방에서의 주생활행위에 대한 요인분석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주생활행위 24개 항목을 15개 항목(Cronbach's $\alpha = .77$)으로 재정리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 요인의 행을 단 순화하기 위해 베리맥스(Varimax)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Eigen값이 1.00 이상인 4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가족단란·모임」 행위, 「휴식·오락」 행위, 「몸단장」 행위, 「취미생활」 행위 등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4개의 요인은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주생활 행위의 66.69%를 설명한다(표 4).

이상과 같이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주생활행위를 파악한 결과, 평균점수는 취침(4.56)³⁾을 제외하면 「몸단장」행위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식·오락」(2.40), 「가족단란·모임」(1.73), 「취미생활」(1.52)의 순으로 나타나, 안방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거나 단순화되어 감을 볼 수 있다.

표 5.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안방에서의 주생활행위

변인		행위		가족단란·모임		휴식·오락		몸단장		취미생활	
		M (SD)	S	M (SD)	S	M (SD)	S	M (SD)	S		
가족수	3인이하	1.56(.72)		2.31(.71)		3.67(1.46)	A	1.38(.79)			
	4인	1.67(.85)		2.33(.77)		4.34(1.09)	B	1.49(.59)			
	5인이상	1.97(.92)		2.58(.83)		4.32(1.02)	B	1.65(.69)			
F값		2.96*		2.14		3.42*		1.81			
가족생활주기	신혼·취학전 아동기	1.40(.56)	A	2.25(.75)		3.53(1.58)	A	1.15(.36)	A		
	초등교육기	1.53(.71)	A	2.36(.78)		4.37(1.07)	AB	1.42(.58)	AB		
	중고등교육기	1.88(.94)	AB	2.36(.98)		4.29(1.11)	AB	1.68(.84)	B		
	자녀독립기	2.25(1.00)	B	2.54(.73)		4.26(1.05)	B	1.80(.65)	B		
F값		10.88***		.92		2.66**		7.18***			
주부연령	20세~29세	1.80(.81)		2.15(.45)		2.60(.96)	A	1.47(.56)			
	30세~39세	1.55(.75)		2.37(.83)		4.35(1.12)	B	1.41(.53)			
	40세~49세	2.04(.94)		2.53(.76)		4.17(1.16)	B	1.82(.75)			
	50세이상	2.15(.99)		2.29(.48)		4.46(.59)	B	1.49(.48)			
F값		5.98***		.81		4.31**		5.54***			
남편교육정도	중졸이하	3.24(1.11)	A	2.36(.43)		4.29(1.11)		1.57(.32)			
	고졸	1.90(1.04)	A	2.38(.76)		4.30(.96)		1.60(.67)			
	대졸이상	1.57(.64)	B	2.41(.82)		4.26(1.21)		1.48(.64)			
F값		16.30***		.025		.045		.804			
주부교육정도	중졸이하	2.85(1.19)	A	2.67(.76)		4.26(.92)		1.81(.67)			
	고졸	1.63(.80)	A	2.34(.80)		4.35(1.02)		1.50(.62)			
	대졸이상	1.60(.65)	B	2.40(.77)		4.20(1.26)		1.43(.64)			
F값		23.57***		1.54		.40		2.46			
남편직업	판매·서비스직	1.99(1.01)		2.43(.58)		4.33(1.14)		1.48(.61)			
	생산직	2.11(1.10)		2.38(.57)		4.53(.68)		1.82(.74)			
	사무직	1.69(.84)		2.37(.90)		4.31(1.06)		1.50(.72)			
	전문직	1.68(.72)		2.46(.84)		4.13(1.25)		1.57(.59)			
	관리직	1.48(.55)		2.36(.77)		4.30(1.28)		1.40(.57)			
	기타	2.33(1.79)		2.38(.92)		3.88(1.03)		1.42(.32)			
F값		2.39*		.12		.48		1.25			
주부취업유무	유	1.97(1.03)		2.46(.77)		4.25(1.15)		1.56(.64)			
	무	1.64(.76)		2.37(.80)		4.27(1.13)		1.51(.64)			
t값		2.64**		.73		-.13		.45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2.80(1.33)	A	2.25(.62)		3.70(1.32)		1.63(.60)			
	100만원~200만원미만	1.75(.90)	A	2.42(.81)		4.23(1.22)		1.44(.55)			
	200만원~300만원미만	1.70(.73)	A	2.44(.78)		4.33(1.98)		1.62(.75)			
	300만원 이상	1.54(.74)	B	2.33(.80)		4.37(1.19)		1.45(.53)			
F값		6.42***		.34		1.08		1.33			
주택규모	20평 미만	2.38(1.42)	A	3.03(.95)	A	4.35(1.25)		1.40(.62)			
	20평~29평	1.79(.97)	A	2.32(.74)	A	4.14(1.23)		1.46(.61)			
	30평~39평	1.70(.77)	AB	2.33(.79)	AB	4.39(.93)		1.56(.68)			
	40평 이상	1.59(.50)	B	2.58(.74)	B	4.35(1.19)		1.69(.61)			
F값		2.63*		3.32*		.71		1.21			
거주연수	2년이하	1.66(.75)		2.30(.80)		4.23(1.20)		1.49(.67)	A		
	3년~5년이하	1.64(.74)		2.42(.71)		4.26(1.15)		1.50(.58)	AB		
	6년~9년이하	2.25(1.28)		2.57(.76)		4.35(1.02)		1.76(.74)	AB		
	10년이상	1.67(.76)		2.79(1.22)		4.64(.48)		1.19(.33)	B		
F값		4.42**		1.57		.35		2.53*			
기거양식	입식	1.41(.47)		2.38(.75)		4.29(1.15)		1.42(.62)			
	좌식	2.03(1.02)		2.42(.81)		4.25(1.12)		1.60(.65)			
t값		5.45***		.39		-.23		2.01*			

* < .05 ** P < .01 *** P < .001 S : Scheffe-test A, B : 서로 다른 문자끼리 유의함

4. 안방에서의 주생활행위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주생활행위가 거주자들의 개인특성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5와 같이 나타났다.

1) 「가족단란 · 모임」 행위

「가족단란 · 모임」 행위는 1.73으로 낮게 나타났다. 개인특성변인별로는 가족 수, 가족생활주기, 주부연령, 남편학력, 주부학력, 남편직업, 주부의 취업유무, 월 평균소득, 주택규모, 거주년수, 기거양식 등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족생활주기가 높을수록 「가족단란 · 모임」 행위가 안방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수가 많을수록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방을 더 개방적으로 사용하고, 가족생활주기가 높아질수록 주부의 연령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안방을 사적인 기능보다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적인 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 · 주부의 학력,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아파트의 평형이 작을수록 「가족단란 · 모임」 이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 평균 소득이 낮고, 평형이 작을수록 안방을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 「휴식 · 오락」 행위

「휴식 · 오락」 행위는 2.40으로 비교적 낮게 이루어지는 편이었다. 개인특성변인별로는 주택규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0평형 이하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점수(3.03)를 보였다. 이것은 20평형 미만의 규모에서는 거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의 부족 등으로 거실이 다른 가족원의 개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하위집단 간에는 10평형대 · 20평형대와 40평형 이상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몸단장」 행위

「몸단장」 행위는 안방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행위(4.27)로서 '옷갈아 입기', '화장' 등이다. 안방에서 '옷갈아입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종 의류를 수납할 수 있는 가구 · 수납시설이 안방공간에 부가되어야 함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안방의 부수공간으로 드레스 룸

의 요구도가 높았던 것과 관련지어본다면 서로 상응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몸단장 행위는 가족수, 가족생활주기, 주부연령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취미생활」 행위

「취미생활」 행위는 가장 낮은 평균점수(1.52)를 보였으며 개인특성변인별로는 가족생활주기, 주부연령, 거주년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생활주기가 높을수록, 주부연령이 40~49세에서, 거주년수가 6~9년 이하에서 「취미생활」 행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 위의 네 가지 요인 외에 안방을 서재나 자녀실로 변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녀실로 변용된 경우 동성인 두 자녀가 사용하고 있었다.

5. 가구사용 행태

가족들의 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와 안방에서의 주생활행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안방공간을 점유하는 가구의 종류와 수, 가구유형과 배치형태, 기거양식 등을 살펴보았다.

1) 가구의 종류와 수

안방에는 대부분 장롱(95.2%)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다음이 화장대(75.2%)로 나타나 안방의 기능과 사용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화장대는 입식 33.3%, 좌식 41.9% 였으며, 그 외에는 서랍장(49.5%), 문갑(47%) 등으로 수납용 가구가 대부분이고, 가구수 4~5개가 63.3%로 나타났다.

안방 기거양식을 침대 사용 유무에 따라 살펴본 결과 입식율이 45.7%로 나타나 입식화가 비교적 낮은 편이며, 이것을 화장대 보유율과 관련지어 보았을 때 입식화⁵⁾는 더욱 낮게 나타났다. 침대사용 유무는 가족생활주기, 주부연령, 주부학력, 취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표 6),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연령이 30대인 주부들에게서는 입식화(55.5%)가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주부의 경우 그 시기가 육아기이므로 어린 자녀와의 동침으로 좌식화(60.0%)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책장(11.9%), 책상(12.9%), 컴퓨터(9.0%) 등의 작업용 가구가 나타나 안방이 혼용되어 있음

표 6.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침대사용유무

독립변인	종속변인	df	χ^2
가족생활주기	침대사용유무	6	22.67***
주부연령	침대사용유무	6	29.15***
주부학력	침대사용유무	4	19.52***
취업유무	침대사용유무	2	6.89*

*P<.05, **P<.01, ***P<.001
 χ^2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만을 요약 정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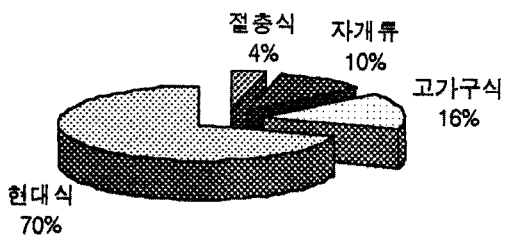


그림 1. 가구의 유형.

을 볼 수 있었고, 특히 간이 의류걸이 ‘행거’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37.7%로 나타나 안방 수납공간 부족을 행거가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가구유형과 배치형태

안방 가구의 유형은 현대식, 고가구식, 자개류, 절충식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는데 주로 현대식 (70.0%)이었으며(그림 1) 가족생활주기, 주부연령 및 학력, 월평균소득, 기거양식, 주택규모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표 7). 연령별로 보면 자개류는 40·50대에서만 볼 수 있는 유형이었고, 기거양식별로는 입식의 경우(53.6%)가 좌식의 경우(46.4%)보다 현대식 가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배치형태에는 대개 벽에 붙여 배치한 분산형이었는데, 벽면을 점유하고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일렬형, ㄱ자형, 병렬형, ㄷ자형, 4면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ㄷ자형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안방가구유형

독립변인	종속변인	df	χ^2
가족생활주기	안방가구유형	9	51.61***
주부연령	안방가구유형	9	74.70***
주부학력	안방가구유형	6	25.76***
월평균소득	안방가구유형	9	18.86*
기거양식	안방가구유형	6	16.63*
주택규모	안방가구유형	9	27.46***

*P<.05, **P<.01, ***P<.001
 χ^2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만을 요약 정리하였음.

표 8. 가구수에 따른 배치형태의 차이 f(%)

배치형태 가구수	병렬형	ㄱ자형	ㄷ자형	4면형	전체
3개이하	14(6.7)	13(6.3)	14(0.5)	1(0.5)	42(20.0)
4~5개	20(9.6)	23(11.1)	45(5.8)	12(5.8)	100(48.1)
6개이상	8(3.8)	8(3.8)	36(6.7)	14(6.7)	66(31.7)
전체	42(20.2)	44(21.2)	95(13.0)	27(13.0)	208(100.0)

df=6 $\chi^2=20.03**$

**P<.01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는 볼 수 없었으며, 가구수에 따른 배치형태를 살펴본 결과 ㄷ자형 배치형태가 많았다(표 8).

3) 기거양식, 가구배치에 따른 안방에서의 주생활행위의 차이

기거양식에 따른 주생활행위의 차이는 「가족단란·모임」 행위 및 「취미생활」 행위에서 볼 수 있었는데(표 5), 이들 두 행위 모두 좌식인 경우에 다소 높게 나타나 침대의 유무가 주생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구배치에 따른 안방에서의 주생활행위의 차이는 「가족단란·모임」 행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9). 배치형태별로는 병렬형, ㄱ자형, ㄷ자형, 4면형, 일렬형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병렬형·ㄱ자형 배치일 경

표 9. 가구배치형태에 따른 주생활행위

주생활행위 배치형태	가족단란·모임		휴식·오락		몸단장		취미생활	
	M(SD)	S	M(SD)	S	M(SD)	S	M(SD)	S
병렬형	2.01(1.03)	A	2.47(.88)		4.44(.88)		1.58(.64)	
ㄱ자형	1.92(.95)	AB	2.33(.74)		4.13(1.20)		1.69(.76)	
ㄷ자형	1.62(.79)	AB	2.41(.79)		4.23(1.18)		1.46(.61)	
4면형	1.46(.49)	B	2.33(.71)		4.48(.99)		1.36(.48)	
F 값	3.71*		.30		.95		1.99	

*P<.05, S: Scheffe-test A, B: 서로 다른 문자끼리 유의함

표 10. 침대사용유무에 따른 배치형태

배치형태 침대사용	병렬형	ㄱ자형	ㄷ자형	4면형	전체
유	7(3.3)	6(2.9)	59(28.1)	23(11.0)	96(45.7)
무	35(16.7)	38(18.1)	36(17.1)	4(1.8)	114(54.3)
전체	42(20.0)	44(21.0)	95(45.2)	27(12.8)	210(100)

df=6 $\chi^2=61.19***$

***P<.001

우에는 침대사용율이 더 낮게 나타난 반면에 ㄷ자형이나 4면형의 경우에는 침대사용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시킬 수 있다(표 10). 따라서 기거양식 즉 침대사용 유무가 주생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우리 나라는 60년대 마포아파트 건설 이후 아파트시대가 열리면서 입식생활과 근대적 설비가 소개되어 서구적인 생활양식으로의 본격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 후 편리성을 인식하게 된 아파트의 정착으로 근대적 생활방식이 수용되어 오면서 안방의 기능 분리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유교적 윤리에 기인한 엄격한 내외의 관념에서 안방(사랑방)으로 남녀의 생활권을 구분하여 왔으나 사랑방 소멸 이후 안방은 부부가 함께 기거하는 부부중심 공간이면서 그 기능은 점차 부부침실로 변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던 안방은 현대인의 주거생활공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과 함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도시주거의 원형으로 정착한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방공간 사용행태를 의식, 주생활행위, 가구사용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안방 공간의 기능변화 및 거주성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1) 아파트 거주자들은 안방에서 주로 취침과 몸단장을 하며, '부부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안방', '큰방' 등으로 부르고 있어 실제 기능과는 차이를 보였다. 안방공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수공간은 '드레스 룸'으로 나타나 안방공간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기능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안방에서의 주생활행위를 요인분석을 한 결과 가족단란·모임행위, 휴식·오락행위, 몸단장행위, 취미생활행위 등의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안방은 부부침실과 몸단장이 주기능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로서 정착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중 가족단란·모임행위는 모든 개인특성변인에서, 휴식·오락행위는 주택 규모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몸단장행위는 가족수, 가족생활주기, 주부연령에 의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미생활행위는 가족생활주기, 주부연령, 거주년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안방에서의 주생활행위는 개인의 특성 변인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안방공간의 가구류는 수납용 가구가 대부분으로 4~5개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현대식 가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배치형태는 'ㄷ자형'을 선호하고 있었다. 안방의 기거양식을 대표하는 침대의 사용율은 45.7%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다 입식화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취침방식에서는 좌식과 혼용되고 있는 과도기적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침대사용 유무에 따라 안방의 주생활 행위중 가족단란·모임행위와 가구배치형태가 차이를 보임으로써 안방 가구중 침대의 유무와 주생활 행위와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할 수 있다.

도시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방공간은 호칭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나, 주생활행위는 부부취침과 몸단장이 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실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안방공간에서의 수납공간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 아파트 계획시 사실로서의 공간배치와 함께 충분한 수납시설을 구비함으로써 기능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특성변인에 따라 주생활행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규모에 따른 획일적 계획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하고 가변성있는 평면을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앞으로 지역적인 폭을 넓혀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주

- 1) 1996년 현재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152,700원이다. 동아연감, 동아일보사, 1998.
- 2) 안방 평균면적은 10평형대가 4.5평, 20평형대

- 가 4.4평, 30평형대가 5.1평, 40평형대 이상은 6.4 평이다.
- 3) 취침행위의 경우 안방에서 가장 빈번하고 의례히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4)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이진숙 외. (1996)의 경우 70.0%(*30평대~50평대의 아파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더블침대의 비율을 평균한 수치임), 장상욱(1998)의 경우 69.1%, 김미희(1991)의 경우 47.8%로 나타났으므로 시대의 경과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단 김종인(1995)의 경우에는 평균이 23.2%로 나타나 본 연구에 서보다 낮게 나타났다.
 - 5) 침대 사용 유무와 화장대의 입·좌식화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침대와 입식화장대'의 동시보유율과 '침대 사용 무(無)와 좌식화장대'의 동시보유율을 조건식으로 하여 데이터 처리한 결과 각각 23.3%와 31.4%로 나타났다.
 - 6) 가구배치 형태 중 일렬형의 경우 사례수(1%)가 극히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참고문헌

1. 강영환(1993).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2. 김미희(1991).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를 중심으로-. 연세

-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김정규(1988). 아파트 단위평면의 특성과 거주자의 주의식 및 주생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종인(1995). 도시공동주거 안방의 이용행태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1), 17-25.
 5. 송창섭(1996). 아파트 단위 주요 평면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경북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이영호(1991). 한국도시주거의 안방에 관한 행태적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이진숙 외 4인(1996).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가구이용실태 및 선호조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8), 3-13.
 8. 장상욱, 신경주(1998).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그 만족도 및 전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 39-50.
 9. 전한중, 박용환(1987). 집합주택에 있어서 Life-cycle에 따른 거주자들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3), 81-92.
 10. 정준현(1993). 도시단독주택의 공간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대구지역의 대중주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조성희(1987).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동아연감(1998). 동아일보사.

(接受 : 1999. 1. 6)